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소폭 상승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9일(월) 미국 증시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으로 1%대 하락 출발했으나, 이후 백악관 주요 관계자들의 반박 발언, 과거의 학습효과 등에 힘입어 다우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서면서 소폭 상승한 채로 마감(다우 +0.32%, S&P500 +0.09%, 나스닥 +0.02%)

주식시장은 현재 진행형인 관세 불확실성에 이어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또 다른 불확실성에 노출됐으나, 2011년 8월 S&P, 2023년 8월 피치에 이어 세번째 경험이기에, 주가 측면에서 내성이 생긴 것으로 판단. 전일 케빗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등 트럼프 정부 측에서도 후행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한 것도 비슷한 맥락. 더욱이, 과거에는 유럽 재정위기(2011년), 연준의 고강도 긴축(2023년) 등 매크로 상 위기 환경이 조성된 반면, 지금은 위기의 레벨이 과거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상기해봐야 함.

결국 이번 신용등급 사태는 2011년, 2023년처럼 저점을 확인하는데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 악재는 아닐 것으로 판단. 기존에 수립 해놨던 증시 대응 시나리오(미중 관세 협상, 관세 여진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고)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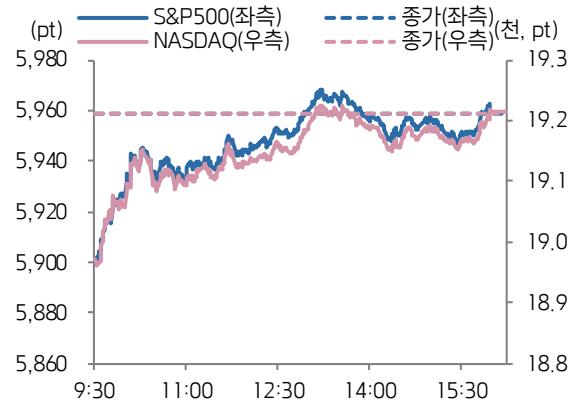
다만, 현재 주식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미중 관세 협상, 1분기 실적시즌 선방 등의 재료에 힘입어 빠른 반등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단기 과열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 실제로 5월 이후 지난주 금요일(16일)까지 주요국들의 수익률을 집계해보면, 코스피(+2.7%), 낫케이(+4.7%), 상해종합(+2.7%), 닉스(+5.6%) 등 대부분 증시들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S&P500(+7.0%), 나스닥(+10.1%) 등 미국 증시는 이보다 반등 탄력이 강했던 상황.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특정 재료를 명분 삼아 차익실현 or 숨고르기성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 가령, 이번 신용등급 사태를 계기로 추후 “미국의 재정건전성 의문 → 국채금리의 구조적인 상승”, “재정적자 충당을 위한 국채 발행 증가” 등과 같은 채권시장의 노이즈가 일시적으로 증시에 제약적인 환경을 초래할 소지. 혹은 전일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통과된 트럼프의 감세 법안(+메디케이드 삭감)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치적인 노이즈가 증시 상단을 제약할 가능성에 대비.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및 그에 따른 미국 금리 상승 부담 등으로 금리 상승에 민감한 성장주,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코스피 -0.9%, 코스닥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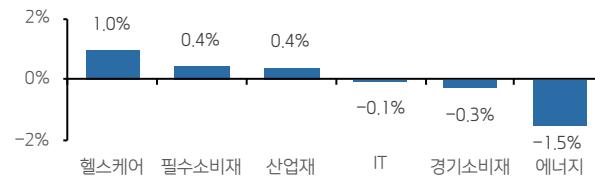
금일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도 반등한 미국 증시 효과 등에 힘입어 전일의 하락폭을 만회하는 주가 흐름을 보일 전망. 업종 측면에서는 전일 미국 금리 급등으로 주가 조정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바이오, 인터넷, 이차전지 등 성장 스타일 업종의 반등 탄력이 높을 것 것으로 예상. 신용등급 강등 여진으로 인해 단기 시황이 유동적이 변할 수 있는 만큼, 장중에는 미국 선물 시장, 채권 시장 변화에 주시할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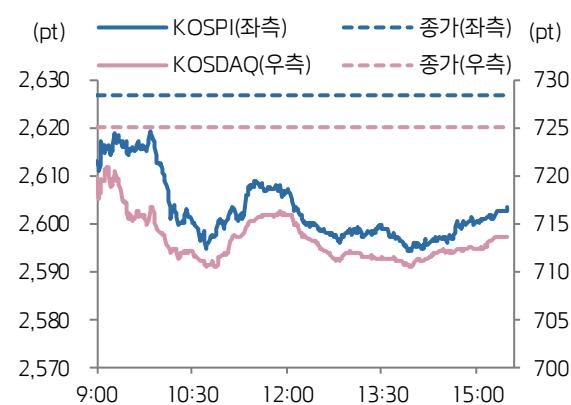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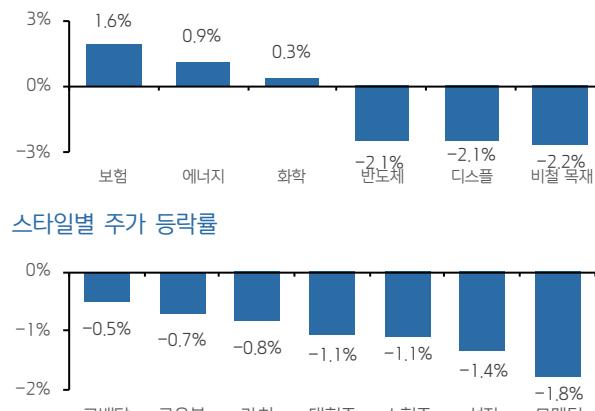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08.78	-1.17%	-16.43%	GM	50.03	-0.68%	-5.84%
마이크로소프트	458.87	+1.01%	+9.28%	일라이릴리	755.11	-0.3%	-1.82%
알파벳	166.54	+0.21%	-11.92%	월마트	98.12	-0.12%	+9.16%
메타	640.43	+0.01%	+9.48%	JP모건	264.88	-1%	+11.76%
아마존	206.16	+0.28%	-6.03%	엑손모빌	106.47	-1.59%	+0.78%
테슬라	342.09	-2.25%	-15.29%	세브론	138.49	-1.35%	-2.15%
엔비디아	135.57	+0.13%	+0.96%	제너럴일렉트릭	98.12	-0.1%	+9.2%
브로드컴	230.63	+0.88%	-0.22%	캐터필러	352.57	-0.29%	-1.98%
AMD	114.74	-2.07%	-5.01%	보잉	205.25	-0.28%	+15.96%
마이크론	98.65	+0.66%	+17.37%	넥스트에라	73.86	-1.5%	+3.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603.42	-0.89%	+8.5%	USD/KRW	1,388.70	-0.81%	-5.68%
코스피200	346.57	-1.11%	+9.05%	달러 지수	100.38	-0.7%	-7.47%
코스닥	713.75	-1.56%	+5.24%	EUR/USD	1.12	+0.69%	+8.56%
코스닥150	1,147.49	-1.74%	+1.57%	USD/CNH	7.21	+0.06%	-1.68%
S&P500	5,963.60	+0.09%	+1.39%	USD/JPY	144.86	-0.58%	-7.85%
NASDAQ	19,215.46	+0.02%	-0.49%	채권시장		가격	DTD(bp)
다우	42,792.07	+0.32%	+0.58%	국고채 3년	2,361	+4.6bp	-23.4bp
VIX	18.14	+5.22%	+4.55%	국고채 10년	2,745	+7.5bp	-12.6bp
러셀2000	2,104.43	-0.42%	-5.64%	미국 국채 2년	3,977	-2.3bp	-26.5bp
필라. 반도체	4,897.71	-0.5%	-1.65%	미국 국채 10년	4,447	-3bp	-12.2bp
다우 운송	15,118.56	-0.27%	-4.89%	미국 국채 30년	4,903	-4.1bp	+12.2bp
상해증합	3,367.58	+0%	+0.47%	독일 국채 10년	2,588	-0.2bp	+22.1bp
항셍 H	8,460.55	-0.09%	+16.06%	원자재 시장		가격	DTD(%)
인도 SENSEX	82,059.42	-0.33%	+5.02%	WTI	62.69	+0.32%	-10.66%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65.54	+0.2%	-12.19%
Eurostoxx50	5,427.23	-0.01%	+10.85%	금	3,233.50	+1.45%	+20.11%
MSCI 전세계 지수	882.39	+0.2%	+4.88%	은	32.31	+0.48%	+10.5%
MSCI DM 지수	3,874.12	+0.28%	+4.48%	구리	463.35	+1.71%	+15.08%
MSCI EM 지수	1,166.64	-0.49%	+8.48%	BDI	1,388.00	+6.36%	+39.22%
MSCI 한국 ETF	58.82	+0.05%	+15.58%	옥수수	447.50	+0.9%	-4.53%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29.00	+0.76%	-7.11%
비트코인	105,485.89	+1.32%	+12.56%	대두	1,050.75	+0.07%	+1.55%
이더리움	2,520.94	+5.27%	-24.67%	커피	374.70	+2.48%	+21.4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5월 19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다.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